

작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 석유·석탄공 2년 연속 '불명예'... 남동·중부발전 '우수'

남동·중부발전, 3년연속 '우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등 호평  
우수기관 포상 등 협력 독려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8곳이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화진흥원, 주택관리공단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석유공사, 석탄공사는 2년 연속으로 '개선'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4사와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코트라(KOTRA)는 '양호' 평가를 받았다. 남동발전, 중부발전은 3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

〈2018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등급	공기업형 (28개)	준정부형 (26개)	기타형 (4개)
우수 (7개)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코트라	-
양호 (22개)	가스공사, 서부발전, 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한전, 한전KDN	가스안전공사, 광해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로교통공단, 산업단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에너지공단, 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보통 (21개)	가스기술공사, 공항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마사회, 여수관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력기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전KPS	공무원연금공단, 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인력공단, 송강기안전공단, 원자력환경공단, 인터넷진흥원, 철도시설공단, 콘텐츠진흥원	코레일유통
개선 (8개)	석유공사, 석탄공사, 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화진흥원	주택관리공단

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엔 58개 공공기관이 대상으로 평가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민간 평가 위원회가 공공기관별 동반성장 추진 실적(75점)과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 결과(25점)를 더해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평가한다. 동반성장 우수 사례의 경우 남동발전은 협력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 협력사의 생산성은 끌어올리고 불량

률과 원가는 낮추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 20곳의 447개 점포의 가스 시설 점검을 지원하기도 했다. 농어촌공사는 태양광 관련 중소기업에 시설 임대료를 50% 할인해 농업용 저수지를 사업 부지로 제공,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8곳 지어 1만6872k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연간 수익은 46억4900만원에 다할 것으로 보인다. KOTRA는 흡소핑, 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과 한류가 확산된 동남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희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대형 유통업체 연계 매칭을 이끄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기관을 큰 폭으로 넓히고 우수 기관 포상 등 상생 협력 활동을 계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또 평가 대상 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 보고서의 평가 항목별 세부 점수를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부산 수영구 '다시찾고싶은 광안리' 민락동 화센터 미디어아쿠아월



경남 통영시 재래시장 활성화 온라인 영상주문 서비스



## 경남 통영시·부산 수영구 등 4곳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만든다

국토부 '테마형 특화단지 종합계획' 경남 통영시, 부산 수영구, 서울 성동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이들 4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에너지·안전·방재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등을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우수사례 창출을 지원한다. 이번엔 선정된 4곳의 지자체에는 각각 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국비 2억2500만원 및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종합계획 수립과정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당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주민체감도 및 기대효과가 큰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도록 추진된다.

경남 통영시는 시민참여를 통해 선정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시장 서비스, 스마트 체형 경매, 정보·환경·안전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역상권과 함께 하는 스마트도시 통영'을 추진한다. 부산 수영구는 지역 관광자원을 스마트 서비스로 특화해 '다시 찾고 싶은 광안

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홍보·주차정보·결제 등의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 내 3개 관광권역별 차별화 서비스를 도입한다. 인접한 2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공주시와 부여군은 기존의 백제문화유산에 스마트서비스를 접목해 '세계적인 문화유산도시'로 육성한다. 공주·부여 간 공간적 연계와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심 내 고도(古都)체제를 위한 열린 박물관 조성사업으로 기존에 유적지 주변으로만 집중되었던 관광동선을 도심까지 확장한다.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 관광 가이드, 체험프로그램, 빈집공유 등 '대안관광 공유서비스'로 관광수요 창출과 더불어 고령인구와 청년층의 일자리 마련을 추진한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상향식(Bottom-Up)방식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지역 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네곳의 지자체에서도 출된 우수사례들은 향후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신하 기자 csh9101@

## 韓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2위' 대출규제 완화·금리 인하로 빚 부담 커져

GDP 비 가계부채 비율 96.9% 부채 규모·소득대비 부담 등 확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세계 2위로 여전히 가계의 소득 대비 빚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분기 대비 0.9%포인트 늘어난 96.9%였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BIS가 통계를 집계한 세계 43개국 중에 중국(1.2%포인트) 다음으로 가장 큰 상승폭이 컸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룩셈부르크(5.4%포인트)가 1위였다. 이어 중국(3.5%포인트), 한국(2.7%포인트) 순이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세가 빨라진 이유는 2014년 중반 정부가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서부터다. 지난 4년간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13.8%포인트로, 중국(16.2%포인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규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데다 소득과 비교해 부담도 빠르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작년 3분기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2.5%로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통계가 있는 1999년 1분기 이래 가장 높았다. DSR은 가계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BIS 통계가 있는 17개국 중 작년 3분기에 DSR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과 핀란드, 캐나다 등 3개국뿐이다. 각각 0.1%포인트씩 올랐다. 특히 한국은 2016년 3분기부터는 DSR이 매분기 상승세를 이어왔다.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데다가 금리상승이 겹쳐서다. 이 기간 DSR 상승폭이 1.1%포인트로 2위인 캐나다(0.5%포인트)와는 차이가 크다. /김희주 기자 hj89@

## 기보 'TECH밸리' 참여대 확대... 활성화 UP

이대·숙대·영남대 등 60곳과 협약 창업교육·투자 등 토털서비스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우수기술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인 'TECH밸리' 파트너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교수, 연구원들의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TECH밸리는 기보의 대표적인 혁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이를 위해 이화여대, 숙명여대, 영남대와 '대학기술 사업화지원 플랫폼(U-TECH밸리) 구축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내 우수기술 사업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TECH밸리 협약을 한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강정애 숙명여대 총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서길수 영남대 총장, 정윤모 기보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학은 서울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6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협약에 따라 각 대학은 대학 내 우수 기술창업 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받은 기술창업기업에 창업교육·보증·투자·기술이전·인증·컨설팅 등 창업부터 엑시트까지 전 주기에 걸쳐 토털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